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창세기 26 주차 (창 21:14~22:5)

(2016년 6월 12일 - 2016년 6월 18일)


(제 4 권 26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ORY 제 4 권-제 26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6 월 12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1:14~21)

- (14 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을 찡기고 물 한 가죽부대를 찡겼고,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녀를 그 아이와 함께 떠나 보냈습니다.
(וַיִּשָּׂם אַבְרָהָם בְּבֶקֶר וַיִּקַּח-לָהֶם וַחַמַּת מַיִם וַיִּתֵּן אֶל-הַגֵּר שָׁם עַל-שִׁכְמָהּ וְאֶת-הַיֶּלֶד וַיִּשְׁלַחָהּ) (וַתֵּלֶךְ וַחַמַּת בְּמַדְבַּר בְּאֵר שָׁבַע)
- (15 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וַיִּכְלוּ הַמַּיִם מִן-הַחֲמָת) 그녀는 그 아이를 관목덤불 (떨기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וַתִּשְׁלַח אֶת-הַיֶּלֶד תַּחַת אֶחָד הַשִּׁיחִים)
- (16 절) 그녀는 걸어서 화살이 날아갈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아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לֶךְ וַתֵּשֶׁב לָהּ מִנְּגִד הַרְחֵק כְּמַטְחָוִי קֹשֶׁת כִּי אָמְרָהּ) 나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אֶל-אֶרְצָהּ בְּמוֹת הַיֶּלֶד) 그녀가 반대편에 앉았을 때,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וַתֵּשֶׁב מִנְּגִד וַתִּשָּׂא אֶת-קוֹלָהּ וַתִּבְכֶּה)
- (17 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וַיִּשְׁמַע אֱלֹהִים אֶת-קוֹל הַנָּעֵר)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וַיִּקְרָא מְלָאֲכָאֵל אֱלֹהִים אֶל-הַגֵּר מִן-הַשָּׁמַיִם)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הּ) 무슨 일이나? 하갈아. (מַה-לָּךְ הַגֵּר) 두려워 하지 말라. (אַל-תִּירְאִי)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כִּי-שָׁמַע אֱלֹהִים אֶל-קוֹל הַנָּעֵר בְּאֶשְׁרֵי הוּא-שָׁם)
- (18 절) 일어나라, 그 아이를 일으켜라. (קוּמִי שְׂאִי אֶת-הַנָּעֵר) 네 손으로 그를 강하게 붙들어라. (וַתְּחַזְּקִי אֶת-יָדָיו בְּיָדְךָ)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כִּי-לְגוֹי גָּדוֹל אֲשִׁימֶנּוּ)
- (19 절)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었고, 그녀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וַיִּפְקַח אֱלֹהִים אֶת-עֵינֶיהָ וַתִּרְאֵהָ בְּאֵר מַיִם) 그녀는 가서 물 한 가죽부대를 채웠고, 그 아이가 마시도록 했습니다.
(וַתֵּלֶךְ וַתִּמְלֵא אֶת-הַחֲמָת מַיִם וַתִּשְׁק אֶת-הַנָּעֵר)
- (20 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있었고, 그가 자랐습니다. (וַיְהִי אֱלֹהִים אֶת-הַנָּעֵר וַיִּגְדַּל) 그가 광야에 거주하였고, 그는 활 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וַיֵּשֶׁב בְּמַדְבָּר וַיְהִי רֹבֵה קֹשֶׁת)
- (21 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이집트(에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וַיֵּשֶׁב בְּמַדְבַּר פְּאָרָן וַתַּחַח-לוֹ אִמּוֹ אִשָּׁה מֵאֶרֶץ מִצְרַ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날이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들이 떡을 떡과 마실 물을 챙겨 아무 말도 않고 묵묵히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었다. 성경의 독자들은 이 광경을 읽으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혹시라도 ‘이삭을 괴롭히던 종의 자식 이스마엘이 드디어 떠나는구나!’ 또는 ‘아들 하나 없이 서러운 시절을 보냈던 사라의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는가!’라며 이삭과 사라의 입장에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지는 않을까? 만약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참으로 경도된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조연에 불과할 뿐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은 선의 역할을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악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각자의 호불호나 자신이 가진 선악 개념으로 이들을 바라 보아서 안 된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아들이다. 사라의 몸종이긴 해도 하갈 역시나 엄연히 아브라함의 첩이다. 그녀는 86살까지 아들이 없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옥동자를 낳아 준 고마운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특히, 후손에 관한 문제에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늑막에 얻은 귀한 자식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지중지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늘그막에 이런 정든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야 하는 날을 맞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성경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창 21:10)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까지 사라의 편을 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상속자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내쫓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십수년을 키운 자신의 피붙이를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아버지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렇기에 지금 침묵하며 아들을 떠나 보내는 아브라함을 보는 독자들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마도 밤새 한숨도 못 잤을 지도 모른다.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을 위해 손수 먹을 것과 물을 챙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날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도움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다 된 노년이니 생산 능력이 의심될만한 나이였다. 게다가 사라는 애초부터 생식 능력이 없는 여자였다. 누가 보아도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아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복잡해진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는 생이별을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과 살아야 한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자면 이스마엘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애쓰고 공들여 만들어 놓은 자기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다. 그는 그것을 떠나 보내려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다. 많은 이들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려 하고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 보이려 한다. 어떤 이들은 노숙자를 돌보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우물을 파 주기도 한다. 양로원을 찾아 무의탁 노인들을 위로하고 돌보기도 하고 겨울이면 달동네에 연탄을 배달해 주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헌금을 통해 의를 쌓고자 한다. 그런 이들은 십일조를 거르는 일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철마다 특별헌금, 감사헌금을 절대로 거르지 않는다. 교회 헌금은 물론이고 아무도 모르게 불우 이웃 단체에 헌금을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 봉사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쌓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타종교인들도 그만한 선행은 한다. 게다가 무신론자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선행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각자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이 하는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란 단 한 가지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만들어 낸 그 의로움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설령 이 세상에서 선한 향력을 끼치기는커녕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고, 실패와 실수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입은 자라면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편,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이 있는 자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움직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다. 죽은 자는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다. 이처럼 행함은 반드시 살아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는 반대로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무엇이든 행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한 행위(Doing)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존재(Being)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인간들이 억지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탄식하여 우리 마음 속에서 부르짖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행위는 강요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낳아 기른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려 한다. 자신의 의를 벗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 힘든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지금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기 바란다. 각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며 내어 놓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자신이 만든 의를 내려 놓고 그리스도로 옷입으라고 명령하신다. 당신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야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이 애지중지 여기던 명예와 훈장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은 후 당신에게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외침을 들으시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14~21)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나섰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하고 있었다. 브엘세바는 그랄의 동쪽에 있고,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이집트로 오가는 내륙 도로가 이곳 브엘세바를 통과했다.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이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하갈의 고향 이집트다. 성경은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방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타아’ (תָּאָה)는 ‘헛갈려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다른 여종들과는 분명히 다른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다. 물론 이스마엘을 낳은 덕분이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고난도 겪었다. 집에서 쫓겨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었다. 그때는 무작정 남쪽으로 걸어 이집트 근처 브엘라헤로이까지 갔다. 그곳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헤브론의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으며 하갈은 상속자를 낳은 어머니였다. 그 동안 하갈은 아마도 꽤나 어깨에 힘 주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이름처럼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나? 하갈은 도저히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며 다녔다.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어깨에 메어 준 가죽 부대도 텅 비어 더 이상 마실 물도 없다. 아이도 지치고 자신도 탈진했다. 이스마엘은 완전히 탈진해서 몸을 가눌 기력마저 없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 아래 덤불에 눕혀 놓고는 화살이 날아갈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로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마냥 울고 있는 모습을 차마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게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저 멀리 앉아서 목이 말라 숨을 가쁘게 내쉬며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거나 하면서 울 뿐이다. 하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햇살도 아랑곳 않고 큰 소리로 목놓아 울 정도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거였다면 전에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로 주인의 집을 나왔을 때 죽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고향 이집트로 가도록 하실 것이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차라리 자기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든지, 왜 도망가는 자신에게 나타나서는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브라함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신 것인지 그런 하나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 외쳤다.

“나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갈은 목놓아 영영 울었다. 하갈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외친 것은 하갈인데 하나님은 정작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참고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뜻이다. 워드 플레이인지는 몰라도 17 절의 첫 단어가 ‘라이쉬마아’ (לִישׁוּמָא)다. ‘라’가 접속사이고 ‘이쉬마아’가 동사다. ‘이쉬

마아 엘로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다. 곧 이어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
다. 그리고는 하갈을 위로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 하갈아. 두려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라 아
이를 일으켜라. 네 손으로 그를 강하게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족속이 되게 할 것이다.”

하갈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열어 주셨고 그녀의 눈에 오아시스가 보였다.
그녀는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가족 부대에 한가득 물을 담아서 덩불 밑에 쓰러져 있는
아스마엘에게 달려갔다. 아스마엘은 브엘세바에서 떠온 물을 먹고 소생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
셨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다. 다만 이스마엘은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
속의 자녀 반열에서 제외되었을 뿐, 이 세상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며 살게 하셨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적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였고, 이제 그 역할이 끝난 것이다. 언약을 위해 조연으로 살다가 조연으로 죽
는 사람도 있고, 언약을 받아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은혜를 누린 자
가 아니라 단지 언약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존재로 살았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다.

가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비정하고 심지어는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 어떤 이는 사랑
하는 이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신 것은 아닐 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처럼 하나
님을 믿게 되기까지 참으로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
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당장은 이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받
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생각
을 주장하고 관철해서 현 상황을 바꾸어가는 능력이 아니라 눈 앞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받아들인 만큼 믿음은 성숙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
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올 때까지 그 집안의 맡아
들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
할을 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블레셋 사람들과 동거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22~34)

- (22 절)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וַיְהִי בַעַת הַהוּא וַיֹּאמֶר אַבְיִמֶלֶךְ וּפִיכָל שַׂר־צְבָאוֹ אֶל-אַבְרָהָם לֵאמֹר)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אֱלֹהִים עִמָּךְ בְּכֹל אֲשֶׁר-אַתָּה עֹשֶׂה)
- (23 절)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라. (וַעֲמָהּ הַשְּׁבָעָה לִּי בְּאֱלֹהִים הַנְּהָ)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을 옳지 않게 다루지 않고 (אִם-תִּשְׁקֹר לִּי וּלְגִינִי וּלְנִכְדָּי)
 내가 너와 함께 행하였던 호의대로 (בְּכַחַד אֲשֶׁר-עָשִׂיתִי עִמָּךְ)
 너는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하라. (תַּעֲשֶׂה עִמָּדַי וְעַם-הָאָרֶץ אֲשֶׁר-גִּרְתָּהּ בָּהּ)
- (24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רָהָם)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אֲנֹכִי אֲשָׁבַע)
- (25 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וַהֲזִיחַ אַבְרָהָם אֶת-אַבְיִמֶלֶךְ)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서, (עַל-אֲדוּת בְּאֵר הַמַּיִם אֲשֶׁר גָּזְלוּ עִבְדֵי אַבְיִמֶלֶךְ)
- (26 절)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יִמֶלֶךְ)
 나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לֹא יָדַעְתִּי מִי עֹשֶׂה אֶת-הַדְּבָר הַזֶּה)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וְגַם-אַתָּה לֹא-הִגַּדְתָּ לִּי)
 나도 듣지 못하였고 오늘에서야 들었다. (וְגַם אֲנֹכִי לֹא שָׁמַעְתִּי בְלַמִּי הַיּוֹם)
- (27 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그들 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וַיִּקַּח אַבְרָהָם צֹאן וּבָקָר וַיִּתֵּן לְאַבְיִמֶלֶךְ וַיִּכְרְתוּ שְׁנֵיהֶם בְּרִית)
- (28 절) 아브라함이 일곱 어린 암양을 따로 세웠습니다. (וַיַּצַּב אַבְרָהָם אֶת-שִׁבְעַת כְּבָשֹׁת הַצֹּאן לְבִדְדָהּ)
- (29 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יִמֶלֶךְ אֶל-אַבְרָהָם)
 왜 여기에 따로 세운 일곱 어린 암양이 있느냐?
 (מָה הִנֵּה שִׁבְעַת כְּבָשֹׁת הָאֵלֶּה אֲשֶׁר הִצַּבְתָּ לְבִדְדָהּ)
- (30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너는 내 손으로부터 일곱 어린 암양을 가져가라. (כִּי אֶת-שִׁבְעַת כְּבָשֹׁת תִּקַּח מִיָּדִי)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가 될 것이다.
 (בְּעֵבֹר תִּהְיֶה-לִּי לְעֵדָה כִּי חָפַרְתִּי אֶת-הַבְּאֵר הַזֹּאת)
- (31 절) 그러므로 그는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עַל-כֵּן קָרָא לַמָּקוֹם הַהוּא בְּאֵר שִׁבְעַת)
 왜냐하면 그들 둘이 그곳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כִּי שָׁם נִשְׁבָּעוּ שְׁנֵיהֶם)
- (32 절) 브엘세바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וַיִּכְרְתוּ בְרִית בְּבֵאֵר שִׁבְעַת)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일어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וַיָּקָם אַבְיִמֶלֶךְ וּפִיכָל שַׂר־צְבָאוֹ וַיָּשׁוּבוּ אֶל-אָרֶץ פְּלִשְׁתִּים)
- (33 절)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וַיִּטֵּעַ אֲשֶׁל בְּבֵאֵר שִׁבְעַת)
 그곳에서 여호와와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וַיִּקְרָא-שָׁם בְּשֵׁם יְהוָה אֵל עוֹלָם)
- (34 절)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많은 날을 머물렀습니다.
 (וַיָּגֵר אַבְרָהָם בְּאָרֶץ פְּלִשְׁתִּים יָמִים רַבִּ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스마엘은 떠났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둘째 아들 이삭만 남았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 계속 살고 있었다. 이스마엘이 떠나고 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단단히 확약을 받아 뒤야 할 게 있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라.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을 옳지 않게 다루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행하던 호의대로, 너는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라”(창 21:22~23).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들어온 날부터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속인 것을 까맣게 몰랐던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집으로 들고 난 후 악몽을 꾸었다.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게다가 그랄 땅의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닫히는 저주까지 받았다. 그런 악몽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모든 여인들의 닫혔던 태가 열리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100세를 앞두고 있던 아브라함, 게다가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늙은 사라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그리고 이듬해에 사라는 옥동자를 낳았다.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은 여느 사람과는 다른 대단한 존재로 생각됐을 것이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을 예삿 사람으로 여길 수 없었다. 이들은 자신의 땅에 들어와서 잠시 거주하는 아브라함을 잘못 대했다가는 큰 경을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호의로 대해 달라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의 부탁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듯 다소 으시댄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아브라함은 말한다 “내가 맹세하겠다!” 사실 누가 부탁을 하고 누가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처음 그랄 땅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적반하장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25 절에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의 달라진 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사실상 그곳의 실세나 다름이 없다. 아브라함의 책망에 아비멜렉이 절절매는 모습을 보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나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당신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도 듣지 못하였고 오늘에서야 들었다”(26 절).

아비멜렉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랄 땅이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해도 아비멜렉은 그곳의 왕이다. 그의 이름 또한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를 보좌하고 있는 군대 장관 비골은

‘강한 자’ ‘전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다. 그곳의 토박이 왕이 강한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보잘것없는 초로의 아브라함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지 않은가?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의사로 헤브론에서 그랄로 왔다. 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헤브론을 뒤로하고 낯선 그랄 땅으로 왔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었을 테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분명 아브라함 스스로 그곳을 떠나 그랄로 왔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현재 그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손과 더불어 언약식을 거행한다. 일종의 불가침 조약이자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언약식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언약식은 아브라함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따로 암양 일곱을 세웠다.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으니 이 우물은 아브라함 소유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곳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위협 없이 오랜 시간을 지낼 수 있었다.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적들의 심장부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후손 이삭도 낳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제하지 않았다.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기든 어디로 가든 두고만 보셨다. 하지만 그가 운대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날 시기까지 알려주시면서 언제나 그를 보호하고 그와 한 약속을 지키셨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거하든 누구와 더불어 살고 있든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고 계신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강한 군대 장관 비굴이 있는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이 존재감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셨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론 험한 곳에서 외롭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도 있다. 어떤 때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대상도 없고, 사방으로 옥여쌈을 당해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묵묵히 실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호흡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당신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3)

(1 절) 이 일들이 있는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וַיְהִי אֶחָד הַדְּבָרִים הָאֵלֶּה וְהָאֵלֹהִים נִסָּה אֶת־אַבְרָהָ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אֱלֹהִים)

아브라함아. (אַבְרָהָם)

그가 대답했습니다. (וַיֹּאמֶר)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נִי)

(2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지금 취하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그리고 가라! 모리아 땅으로...

(קַח־נָא אֶת־בְּנֶךָ אֶת־יְחִידְךָ אֲשֶׁר־אַהַבְתָּ אֶת־צִחָק וְלֶךְ־לְךָ אֶל־אֶרֶץ הַמֹּרְיָה)

번제로 드리라! 그를... 내가 네게 말할 한 산, 그곳에서

(וְהַעֲלֵהוּ שָׁם לְעֹלָה עַל אֶחָד הַהָרִים אֲשֶׁר אָמַר אֱלֹהִים)

(3 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어 나귀에 안장을 지웠습니다.

(וַיִּשְׁכֶּם אַבְרָהָם בַּבֹּקֶר וַיַּחְבֹּשׁ אֶת־חֲמֹרוֹ)

그의 남종들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취했습니다. (וַיִּקַּח אֶת־שְׁנֵי נַעֲרָיו אֹתוֹ וְאֵת צִחָק בְּנוֹ)

그는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개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וַיִּבְקַע עֵצִי עֹלָה וַיִּקֶּם וַיֵּלֶךְ אֶל־הַמָּקוֹם אֲשֶׁר־אָמַר־לוֹ הָאֱלֹהִ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에게 나뭇짐을 지운 것을 보면 아마도 이삭은 성인에 가까운 소년이었을 것이다. 이삭이 이렇게 자라나기까지 십수 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일체 개입하시지 않았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오랜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신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다. 청천병력도 유분수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아케다’ (Akedah)라고 부른다. 히브리어로 ‘아케다’(עֲקֵדָה)는 ‘결박하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를 결박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창세기 22장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부분이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의 믿음을 확증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난해하다는 말은 그만큼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말도 된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한다. 3일이라는 긴 여정에 나무와 대속 제물인 숫양이 등장한다. 게다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은 극적이기까지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단 하나의 주제만을 부각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먼저 이 에피소드는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비멜렉과의 사건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 구절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지칭하기보다는 이전에 일어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반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이 일들이 있은 후”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세 번 (창 22:1, 39:7, 40:1) 나온다. 모두 내용상 반전이 있을 때 사용되었다. 이는 이야기의 흐름상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상황의 반전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이시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고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도우미에 더 가까웠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은 상속자인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이런 그의 인생 막바지에 너무도 큰 반전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싸’ (נסו)다. 히브어는 동사에 쓰인 용법에 따라 상황이나 의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용법은 피엘(Piel) 용법이다. 피엘 용법은 행동이나 의지가 가장 강한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인다. 이같은 용법을 근거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결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시험은 시험 보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하나님의 시험이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그 시험은 예고도 없다. 예고가 없다는 말은 당사자가 시험 가운데 들어가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시험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한다. 대부분의 시험은 갑자기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쳐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가벼운 시험도 있지만 인생 여정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큰 시험도 있다. 어떤 이는 아침에 웃는 모습으로 출근한 남편이 별안간 교통 사고를 당해 생사를 넘나든다는 전화를 받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직장을 잃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즐겁게 수학 여행을 떠난 사랑하는 자녀를 갑작스런 사고로 잃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건들이 방송에 나오는 뉴스에 불과할 지도 모르지만 그 일을 직접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험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시험이란 늘 과거형이어서 미리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은 당하는 자에게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하셨다는 말은 언제나 사후적 해석인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계획된 일이겠지만 당사자들은 일이 다 끝난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도 당연히 사후적 해석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다. 하나님의 주권, 사랑, 희생, 대속의 의미까지... 이 특별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심오한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그 과정이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언제나 유익하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에도 시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시험이었나요? 당신은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뎠나요?

이삭을 드리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3)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늘 ‘너’라는 이인칭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반가웠을까? 아니면 당황스러웠을까? 그도 아니면 잔뜩 의혹을 품었을까? 전후사정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극도의 긴장을 느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잔뜩 긴장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다. 그리고 그 명령은 단호하고 추호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추상같은 명령이다.

하나님은 이삭을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도 이삭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에게 있는 유일한 외아들임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치라고 명하신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있다.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알고 있으니 지금 하는 이 명령에 우리들은 별로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보자. 하나님은 이삭을 정확히 설명하셨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다. 하갈에게서 낳은 첫아들 이스마엘은 벌써 쫓겨 나가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더 이상 이어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나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들 문제로 시달린 사람이다. 그런 아브라함이기에 인고의 시간을 참고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웠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다.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들에게는 없는 위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것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리 만무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는 너무 황당했을 것이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게다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그 아들을 손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원망하지 않았겠는가? 아브라함은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밤새 뒤척거리며 뜯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어떻게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오직 그의 반응만을 신문기사 쓰듯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 그가 정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력하기 짝이 없다. 그는 한 마디 대꾸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어 나귀에 안장을 지웠습니다. 그의 남종들 둘과 그의 아들을 취했습니다. 그는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갠 후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여 갔습니다”(창 22:3).

아침 일찍 잠을 깬 아브라함은 말없이 나귀에 안장을 지웠다. 그의 종들 중 남종 둘을 선발하고 이삭을 불렀다. 그리고는 조용히 번제에 쓸 나무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 집을 나섰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위한 사흘 간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따르는 것일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히 11:17~19).

결국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때를 쓰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살려 주실 것이라 믿었다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이 편안했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시험은 언제나 고통과 고난을 수반한다.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의 과정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한편으론 불안한 구석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인간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든 할 수 있다. 예수님도 겹세마 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시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믿음은 없다. 다른 말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입증되는 것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삶이 평안하기만 한데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겠는가?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후에만 얻어지는 영광이다. 믿음이 그렇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말이 없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비통하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비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쩌면 그 비통을 통해 믿음을 다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건지 누가 알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이삭을 주신 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반전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의 과정을 인내하는 동안 당신이 새롭게 알고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삭은 뭔가?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3)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취하라” “가라” “번제로 드리라” 세 개로 나뉜다. 하나님의 첫 명령은 “취하라”인데 이렇게 번역된 동사 ‘라카’ (לקח)는 어떤 물건을 취하거나 땅을 빼앗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많은 번역에서 이 부분을 ‘동반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희생 제물이 될 이삭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무 것도 묻지 않는다. 번제로 드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 할 이삭은 도대체 자신이 무엇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서 이삭은 단순히 희생 제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들렸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가 육신을 입은 이유는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그분이 대표로 희생 당하기 위해서다. 3년여의 공생애가 끝나고 유월절 전날이 되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여느 때처럼 늘 기도하러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다. 때는 늦은 밤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대제사장들이 보낸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수난을 당하다가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절히 호소했다. 그것도 무려 세 번을 기도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보인다. 그 동안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청을 냉정하게 외면하셨다. 하나님의 결론은 “그냥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죽어라!”였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 그 자체였다. 희생 제물은 희생되어야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법이다.

이삭은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취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박 당해야 하고 번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는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어렵사리 얻은 아들 이삭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기 의지를 박탈당한 희생 제물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은 “가라”이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갈데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와 매우 유사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여 부르실 때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창 12:1 참조)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말할 한 산으로”라고 명령하신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 이번에는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은 바로 모리아 산이다. ‘모리아’는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하나님이 보심’이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곳의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내포돼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을 향해 걸어갔다.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은 “번제로 드리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추상같아서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번제’로 번역된 ‘오라’(נָחַם)는 ‘올려 드리다’라는 동사와 어근이 같다. 번제란 그저 제물을 불에 태우는 의식이 아니라 제물이 불에 태워져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들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죄’라고 말한다. 그 죄는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없앨 수 없다.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삭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인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화목은 곧 시공을 초월한 택한 백성 모두와의 화목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이삭은 모든 택한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의 모형이다. 인류 역사상 택한 백성을 위해 자신이 화목 제물로 드려진 분은 단 한 분뿐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등장한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삭의 의지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희생 제물은 그냥 희생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당신이 희생 제물의 희생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노래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마치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기껏해야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며 안타가워 하는 정도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믿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진정한 성도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죄와 허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이중의 정체성을 갖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은혜를 받은 수혜자인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가해자인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해자라고 비난하지도 않고 수혜자라고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말고는 철저하게 우리의 몫이다. 가해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고도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만 얻어 챙기고 가해자로서의 가책이나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반쪽 그리스도인이다. 희생 제물은 말없이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이삭은 말이 없다.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묵상을 위한 질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기꺼이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당신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4-5)

(4 절) 3 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בַּיּוֹם הַשְּׁלִישִׁי וַיִּשָּׂא אַבְרָהָם אֶת־עֵינָיו וַיַּרְא אֶת־הַמִּקְדָּשׁ מְרֹחֵק)

(5 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רָהָם אֶל־נַעֲרָיו)

너희는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라. (שְׁבוּ־לְכֶם פֹּה עִם־הַחֲמֹר)

나와 이 아이는 저 곳으로 갈 것이다. (וַאֲנִי וְהַנְּעָר גֵּלְכָה עַד־כָּה)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וַנִּשְׁתַּחֲוֶה)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וַנָּשׁוּבָה אֵלֵיכֶ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집을 나선 아브라함 일행은 북으로 향했다. 아브라함과 이삭, 남종 들과 나귀 한 마리가 일행의 전부다. 집을 나선지 사흘째 되던 날 아브라함 일행은 모리아 산 근처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브엘세바에서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약 48 마일 정도다 (약 75Km). 아브라함 일행은 이 길을 사흘 동안 걸었다. 하루에 16 마일 (약 25km) 씩 걸은 셈이다. 한 시간에 5 킬로씩 걸더라도 하루 다섯 시간 정도 걸은 셈이다. 아무리 아들 이삭을 동반했다 하더라도 당시 걷는 게 일상 이던 유목민들에게는 너무 느린 속도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이번이 어쩌면 아들과의 마지막 여행 이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테니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유업을 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허망하게 죽이는 것으로 끝내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삭을 되돌려 주실 거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현실은 현실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아브라함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터벅터벅 곁에서 걷고 있는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질 듯 아팠을 것이다. 나귀 등에 얹혀진 나무를 보면 아들이 번제로 불타는 장면이 떠올라 발걸음을 떼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은 그만큼 다가오는 아들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사흘 간의 여행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 두려운 여행길이었다.

진실된 사랑은 그런 것이다. 희생은 그저 어떤 물건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다. 넉넉한데서 일부를 떼어 주는 것도 아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병들어 아무 쓸모 없어진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 가장 흠없고 아끼던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아끼고 사랑한 만큼 희생의 크기는 비례하는 법이다. 우리는 희생 제물을 그저 종교적 관점과 종교적 언어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못박았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다. 하나님은 어쩌면 심정적으로는 제발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필연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무게와 정확히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이다.

멀리 모리아 산이 보였다. 마침내 그시간이 다가왔다. 아무리 천천히 간다해도 시간을 한없이 늦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멀리 보이는 모리아 산을 바라 보았다. 그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탄과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것이다. 아마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다. 잠시 멈추어 먼 산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라. 나와 이 아이는 저 곳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하고 함께 너희에게 돌아 올 것이다”(창 22:5).

종들은 딱 여기까지다. 희생 제사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종들은 함께 갈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한다.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아들과 함께 떠나지만 혼자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한다. 이 말은 어찌면 아브라함 자신의 강한 소망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일 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라고 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은 희생이다. 당연히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고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희생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배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희생을 통한, 그리고 희생 가운데 있는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어야 비로소 예배가 된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 건강적 풍요를 누리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멀다. 예배의 중심은 희생이고 그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위해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것이 예배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러 가는 중이다.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매우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집에서 폭 쉬며 가족과 함께 할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한 번쯤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나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사역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걸 하는지 알고 그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찬양과 설교와 사역과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예수, 사흘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니 과연 예배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예배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과연 당신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각자가 깊이 고민해 볼 문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사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의 심정에서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